



제71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22일)

## 두 보살 이야기 - 간다라와 그 이후

노남희, 308호 인도·동남아시아실 18:00~18:30

“그 사람 정말 보살이야”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를까요? 보통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너그러이 넘기거나 참기 힘든 일 앞에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이를 두고 보살이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Bodhisattva’를 음역音譯한 말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살은 붓다(부처)가 되기 전의 싯다르타 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싯다르타는 우연히 성문 밖을 나갔다가 인간의 생사와 고통을 목격하고, 태자로서의 안온한 삶을 포기한 채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섰지요. 그리고 몇 년간의 수행 끝에 보드가야Bodhgaya의 보리수菩提樹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은 자(붓다Buddha)’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살은 세속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발전하면서 보살의 역할과 개념은 점점 확장되었고, 특히 후기 대승불교의 발전과 함께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중생의 구제를 위해 힘쓰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추상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이를 통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보살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미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미술인 간다라 미술(1~3세기)에서 보살은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걸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옷주름과 신체 표현, 이목구비는 실제 사람 같고, 고요하고 엄숙한 얼굴은 마치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합니다. 즉 이 보살은 세속인이었던 시절의 싯다르타를 모델로 만들어져,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보살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800년 후에 만들어진 팔라Pala 시대의 보살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춤을 추는 듯 유연한 자세에 장신구와 의복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졌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다양한 보조 장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몸 뒤편으로 솟아오른 연꽃과 그 위에 놓인 네모난 물건은 불교 경전으로, 이는 이 보살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이라는 표식입니다. 깨달음을 회구하며 사유하는 인간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신과 같은 보살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두 보살상이 보이는 차이는 만들어진 시대와 지역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살에 대한 개념 변화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71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22일)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 운영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 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북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서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제71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22일)

## 조선의 유교화와 『소학』

서윤희, 117호 조선 I 실 19:00~19:30

조선은 성리학적 이상사회 건설을 표방하면서 건국하였습니다. 성리학은 고려말 원나라를 통해 도입되었고 성리학의 가치를 내건 개혁 세력은 오히려 유교적 가치에 충실했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무력을 바탕으로 역성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성리학적 가치인 ‘의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현실 정치에서는 힘의 논리가 더 강조되었습니다. 태종이 형인 이방과(정종)에게 잠시 권력을 넘겨주었다가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이르는 과정은 단적인 예입니다.

조선은 국가 주도로 꾸준히 유교화 정책을 실시하여 건국 후 100년이 지나는 동안 성리학의 발전과 그 가치의 확산이 개인의 삶과 정치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16세기 사림士林으로 불린 이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왕을 쫓아내고 반정反正으로 중종(r.1506~1544)이 즉위했습니다.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사회에서 신하가 왕을 내쫓는 행위는 반역이자 찬탈이지만 오히려 반정으로 정당화 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반유교적 폭정은 반정의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중종대는 유교적 가치가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의리와 명분의 실천을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몽주의 문묘 종사(1517)가 이루어지고, 기묘사화 이후 사림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 계보를 만들어 의리의 실천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또한 『소학』이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서로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중종반정 이후입니다.

『소학』은 주희가 제자 유청지劉淸之 등의 힘을 빌려 『서경』이나 『예기』 등의 여러 경서와 역사서, 송대와 그 이전 학자들의 글에서 발췌하여 편찬(1187년)한 성리학 입문서입니다. 주희는 『소학』을 통해 일상에서의 예절과 기예를 익히고 『대학』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며 사람을 다스리는 이치를 궁구하게 하였습니다. 이 두 책에 주희는 평생 개척한 학문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소학』에 주목하여 보급하고자 하였고 특히 조광조와 기묘사림들은 소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리학의 핵심을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제71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22일)

## 왕세자 책봉 기념 병풍 - 요지연도

명세라, 202-5호 서화Ⅱ실 19:00~19:30

정조24년(1800) 2월 2일, 왕세자를 책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된 인물은 훗날 순조입니다. 뜻깊은 행사였지만, 정조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그 해 6월 28일에 승하하였고, 순조는 왕세자로 책봉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작품은 왕세자 책봉 행사를 ‘기록한 병풍’이 아닌 ‘기념한 병풍’입니다. 진연도나 진찬도 등과 같이 행사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물입니다. 왕세자 책봉식에 참여했던 선전관청의 관원들이 경사를 기록해 후대에 알리고자 제작했습니다. 여러 벌을 만들어 행사에 참여했던 관원들끼리 나눠 가졌으며, 이 작품과 같은 그림이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있습니다. 1쪽에는 행사의 의의를 적었고, 8쪽에는 당시 행사 담당자 명단을 적었습니다. 행사 의의는 이시수李時秀(1745-1821)가 썼는데, 이시수는 영조대 우의정이었고 순조대 좌의정과 영의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관원들은 왜 요지연도를 선택해 병풍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선 요지瑶池는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곤륜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입니다. 요지연도는 요지 연못에서 열리는 잔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곤륜산에는 3,000년마다 한번 열리는 반도라고 부르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복숭아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반도 복숭아가 3,000년 만에 열리자 곤륜산에 사는 여신 서왕모는 너무 기뻐 신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 신분으로 참석한 주나라 목왕에게 반도 복숭아를 선물합니다. 요지연도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장수와 행복을 바라며 집안에 설치한 그림입니다. 관원들이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요지연도를 선택한 이유는 왕세자 책봉식이 곤륜산 요지 연못에서 열리는 잔치처럼 성대하고, 책봉된 왕세자의 만수무병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